

재생 테이프(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) 관리법

사용 목적

- 레이저 시술 부위의 상처를 보호하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.
- 외부 자극과 세균 감염을 막아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.

관리 방법

- 시술 다음날부터 세안은 가능하나, 재생 테이프가 들뜨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떨어지면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합니다.
- 테이프 안쪽이 도톰해지거나 하얗게 보이는 것은 상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, 양이 많지 않다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.
- 교체 시 상처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잘라서 붙입니다.
- 교체 시 소독은 필요 없으며, 진물 등 분비물이 없는 경우는 테이프만 다시 붙입니다.
- 진물이 테이프 밖으로 새어 나오거나 진물 등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경우는 가볍게 물로 씻어내거나,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멸균 생리식염수를 거즈에 적셔 부드럽게 (딱지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) 1~2번 닦아 낸 후,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붙입니다.

교체 시기

- 진물, 피가 많이 나서 떨어지는 경우는 하루 1회 교체(시술 직후 1일~2일)
- 떨어지지 않을 경우, 테이프 부착 부위의 가려움증 등의 불편감이 없다면, 5~6일 정도는 그대로 붙여 두셔도 됩니다.

사용기간

- 5일~14일(상처 회복 정도에 따라 조정)

사용을 마친 후

- 상처가 회복된 부위는 색소 침착, 홍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, 3~6개월 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.(붉은 자국 → 갈색의 색소침착 → 정상 피부)
- 색소 침착, 홍반의 지속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(SPF 30, PA++이상), 재생크림의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.

주의사항

- 시술 후 1주간은 사우나, 온찜질, 음주, 과도한 땀 분비를 촉진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재생 테이프에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진물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하거나, 붙인 부위가 심하게 붉어지거나 부어오르고, 가려움이 심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- 장기간 사용 시 주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

시술 관련 문의는 피부관리실(031-780-2985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031-780-6000으로 문의 내용 남겨주시면,
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